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이 글은 청소년이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 하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주된 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 문화에 대한 접근 논리를 모색하고, 청소년 일탈행동 형성에 대한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환경특성으로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개인특성으로서 청소년의 심리특성과 행동특성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를 횡단자료 뿐만 아니라 종단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기동안 경험하는 환경적 변화와 개인특성 변화의 맥락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종합 논의를 시도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일탈행동, 학교폭력행동, 도덕적 이탈, 사회성효능감, 가정환경, 학교환경, 친구관계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INHA-30215)

† 교신저자 : 박영신,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spark@inha.ac.kr

서론

청소년범죄 발생 건수가 1990년대 이후에 계속 많은 증가를 보여왔다. 경찰청(2002)의 통계에 의하면, 1992년에 18,770건에서 1995년에는 123,372건, 1998년에는 151,38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1년에는 131,059건으로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나, 1990년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범죄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는 가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 가출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8년 14,686건에서 2000년에 18,442건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a). 전체 학생 중에서 비행학생의 비율을 연도별(교육부, 2000)로 보면, 1980년에서 1988년까지는 0.2%에서 0.4%의 값을 보였으나,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에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1997년 이후에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학생 100명 중에서 거의 1명이 비행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행이나 범죄 청소년 문제가 늘 사회문제가 되어 왔지만, 점차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여기에 숨은 비행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 피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청소년 총 6,893명 중에 3,862명(56.0%)이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이 이를 확인해 준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며, 청소년기 동안 어떠한 변화 양

상을 거쳐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각각의 연구에서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의 맥락에서 재조직하고 검토하여,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은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

몇 년 전에 청소년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주유소 습격사건’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일탈청소년들이 주유소를 습격한 뒤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룬 것이다. 이 영화에서 ‘왜 주유소를 습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이라고 답하지만, 주인공인 일탈청소년들은 집에서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로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머리를 두들겨 맞고 가출하였거나, 학교생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물구나무서기 하는 처벌을 선생님께서 받아 굴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거나, 음악을 하려고 했으나 집세를 못내 주인에게 쫓겨나므로써 사회의 냉혹한 현실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모두 있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비록 가상의 픽션의 세계이나,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겪는 충격적인 경험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자기조절하지 못할 때 일탈청소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한다.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비록 개인차가 있지만 부모 양육의 틀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하며,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사소한 실수이거나 발달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 중에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위탁시설 등에 수용되거나 지도 감독을 받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의 일탈행동이 범법행위로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청소년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들로부터 일탈된 행동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여전히 건전한 여가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성취행동에 주력하기도 한다. 어두운 밤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에 열중하는 청소년(박영신, 김의철, 2002)과, 한편으로는 학교를 장기결석하고 기출하여 범법행위를 하는 청소년이, 같은 학급의 동급생으로 공존하고 있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 어떤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착실히 준비하는 반면에, 왜 어떤 청소년들은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문제가 되는 일탈행동이나 범법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또한 일탈행동에 개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 동안 일시적인 방향으로 그치는 청소년과, 지속적인 재범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범죄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어두운 삶의 양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청소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이든 여러 번이든 일탈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성취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절실한 질문들이 이 글을 엮어가는 중심에 위치한다.

접근논리의 모색:

주된 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 문화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형성되는데 유전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태어나면 서부터 일탈 청소년과 모범 청소년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해 가면서 누적된 사회 문화적 경험이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고, 이러한 심리는 행동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하며, 개인의 심리와 행동 특성은 환경과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된 심리 행동 경향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은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모형으로서 ‘청소년의 경험과 심리-행동의 형성’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이 학교폭력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탈행동 및 더 나아가서는 이와 대조되는 성취행동을 설명하는 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의 형성이, 청소년의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업 등 많은 면에서 성취를 하고 일탈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세계와, 학교생활에서 성취감이 없고 소외되어 있으며 가정에서도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이 질적으로 다른 삶의 경험, 인간관계, 환경은, 결과적으로 다른 삶의 역동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집단은 그와 관련된 일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과 관련된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며, 이와 같이 개발된 기술과 더불어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그 기술을 활용한 행동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환경으로부터 제공받

게 되며, 그것은 연속적인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한 경험을 누적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주된 문화에 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재생산해 나간다.

반면에 하위 문화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지닌다. 즉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의미를 청소년에게 부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예컨대 도덕적 이탈과 같은 심리현상이 촉진되며, 나아가서 그러한 부정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기초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에 따른 처벌 또는 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피이드백은, 부정적인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누적시키므로써, 결과적으로 주된 문화와 전혀 다른 하위 문화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하위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하위 문화를 재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개념모형은 이 글의 기본적인 접근논리이다. 즉 주된 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 문화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다른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의 양식을 생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이러한 다른 삶의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하는 점이다.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

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환경특성 및 개인특성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환경특성으로는 가정환경(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가족구성 등)과 학교환경(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을 포함하고자 하며, 개인특성으로는 심리특성(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등)과 행동특성(학교폭력행동, 학교처벌경험, 학업성취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기 환경 변화와 개인특성 변화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의 변화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의 변화에 관련된 종단적 횡단적 자료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행동의 변화 그 자체만을 살펴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양육태도, 친구관계와 교사관계,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청소년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의 변화와, 청소년 일탈행동의 변화가 상호 어떠한 유기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탈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이 글에서 다루는 논의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일탈행동의 범위를, 일탈청소년 분류집단과 일탈행동의 내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일탈행동의 분류집단이나 일탈행동의 내용에 제한되지 없이, 일탈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다룬 모든 연구결과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주된 관심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포함하고 있는 일탈청소년의 범위는, 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 위탁 청소년, 일반 학생 중에서 일탈행동을 경험한 청소년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소년원생은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다가 범법사실이 적발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경우로서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탈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반성의 기회를 인정받아 소년원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호관찰과 통제를 받는 보호관찰 청소년집단이 있다. 이 집단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하거나 공식적인 보호관찰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소년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이라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자의든 타의든 위탁기관에 위탁된 청소년이 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위탁기관의 예로 쉼터나 교육청을 들 수 있는데, 쉼터는 주로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여,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로 빨리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곳이다. 쉼터 청소년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휴학하거나 자퇴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다. 교육청 위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일탈행위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학교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청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공식적으로 의뢰된 중·고등학생 집단이다. 이와 같이 일탈행동이 적발되어 법적인 통제나 공식적인 지도를 받지는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일탈행동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년원생이나 보호관찰청소년 및 위탁청소년 또는 일반 학생의 일탈행동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일탈행동의 내용 면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주로 학교생활의 장에서 또래집단에 대한 폭력행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탈행동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각 발달단계에 비추어 사소한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탈행동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러한 일탈행동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이란, 마약이나 각성제 경험,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접촉, 학교폭력,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침 등의 다양한 행동의 예들을 포함한다. 물론 일탈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일탈로 이어지는 경로나 형성과정이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청소년의 성취행동과 대조되는 하나의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일탈행동 형성에 대한 개념 모형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환경특성 및 개인특성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접근논리는,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안한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특성의 형성’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개념모형은 한국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횡단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와 종단 연구들(권혁호, 김의철, 박영신, 2002b;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의 틀이다. 이 모형에서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일탈행동도 그것 자체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에서 교사관계 및 친구관계, 나아가서 사회 환경과 사회변동 및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등이 어떻게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스트레스, 부적응, 불안감 등의 심리적인 특징들과 어떠한 역동을 이루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다. 조성도(2000)도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에서, 폭력적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나 인지과정상의 왜곡 등에 초점을 둔 '개인 특질적 접근'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둔 '사회 환경적 접근'을 종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특성의 형성' 개념 모형을 토대로, 가정이나 학교환경의 맥락 속에서 부모자녀관계나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2a), 불안과 신뢰(Lee, Park, & Kim, 2002),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자기효능감(박영신, 김의철, 2003), 성취동기(Chung, Choi, Park, & Kim, 2002), 학업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등의 주제가 연구되어 왔다. 횡단자료 및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다양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개인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거듭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개념모형을 기초로 지금까지 다루어진 내용들은 주로 청소년의 성취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Park, 2002a; 2002b)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서도 성취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관계가 핵심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친구관계나 교사학생관계는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또한 성취행동을 위해서는 자기효능

감의 예언력이 매우 컸는데, 일탈행동의 형성에서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변인들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외에 도덕적 이탈과 같은 구인들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기타 다양한 청소년의 행동특성과 일탈행동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청소년 일탈행동과 환경 및 개인특성 변인의 관계

가정환경과 일탈행동

가정환경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사회경제적지위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간에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소년원생의 부모 사회경제적지위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 사회경제적지위보다 훨씬 낮았다. 소년원생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의 부모 사회경제적지위도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예정).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에서 모두, 보호관찰 청소년의 평균값이 낮았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의 학력과 경제적 능력이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쉼터나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b)도,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즉 위탁청소년이 중 고등학

생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았다. 또한 가출 경험 학생과 비가출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비교(이상미, 1997) 하였을 때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비가출 학생이 가출 학생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와 반대로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가정에서는 가출 학생이 비가출 학생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월 평균수입의 면에서 각각 분석하였을 때에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박영신과 김의철(2001)이 일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으로 나누어 세 집단간 부모 사회경제적지위를 비교한 결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 내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폭력행동에 가담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 중이거나 법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위탁된 청소년들의 부모 사회경제적지위는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생활수준도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외에 가족의 구조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들이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예정)이 ‘가정의 거주형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고등학생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친부모인 경우도 적고, 결손가정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범죄자의 가정상황에 대해 대검찰청(2000)에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일

탈 청소년일수록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친부모가 아닌 편부 편모 또는 계부 계모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손된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가정의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심리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1997)에서 심사대상이 된 문제청소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훈육태도가 적절했다고 반응한 경우는 매우 일부였으며, 그 나머지는 방임, 익애, 일관성 결여, 엄격, 부모불일치, 거부 등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한 결과(조현진, 박성수, 1991)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는 평소에 훈육방식이 너무 강압적 처벌적이며 문제행동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 대한 설득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훈육이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보다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양육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은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성취지향적으로 양육하면, 일탈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은, Park과 Kim(1998)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자녀의 일탈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초 중 고등학생을 표집하여 그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및 무경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검토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a)도, 폭력행동집단별로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가해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집단, 학교폭력 무경험집단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장 부모와 적대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폭력가해 - 피해집단, 폭력가해집단, 폭력 피해집단 및 폭력무경험 집단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Kim, Park, & Kim, 200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초, 중, 고, 대학생은 표집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0; Park, 2000; Park, 2001)에서도, 부모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무관심할수록 청소년 자녀가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가 일탈행동을 적게 하였다. 특별히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초, 중, 고등학생의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대학생은 부모와 갈등이 일탈행동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도,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설명변량이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예언력이 높은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탈행동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나 아버지의 애정이 결여된 것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의 거부적 양육태도나 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결여가, 대학생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볼 때,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및 무관심이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애정은 자녀의 일탈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탈행동 경험여부별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및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청소년 자녀들이 더욱 일탈행동에 몰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은 한상철(2001)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풍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이 청소년의 가출충동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나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등도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과 최원기(1990)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재수생도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라 비행의 빈도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민하영(1992)이 소년원생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거리감이 있을수록, 가족들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정도가 높았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토착심리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부모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이든 일반 고등학생이든 청소년집단에서 부모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평소 부모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 모두 ‘좋은 분이다’는 반응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일반 고등학생들은 그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반응율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에, 보호관찰 청소년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두 번째로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탈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들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고등학생 부모는 ‘학업/진로/교육 문제’를,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는 ‘거짓말/생활태도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의 학업이나 교육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순종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는 등 생활태도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대해 고등학생 부모는 ‘솔직한 대화’ ‘대화를 조금 한다’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는 ‘솔직한 대화’ ‘대화의 어려움’ 순서로 나타나므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평소 생각과 태도’로서, 고등학생 부모는 ‘내 몸과 같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데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는 ‘불만스러움’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등학생 부모나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해 ‘신뢰한다’는 반응에 대해 90%가 넘는 압도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가 자녀의 거짓말이나 생활태도 문제로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평소 자녀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무엇보다 자녀가 보호관찰까지 받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녀를 신뢰한다고 반응한 결과는 흥미롭다. 즉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국의 부모들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감싸주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에 대한 신뢰의 이유’로서 고등학생 부모와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 모두 ‘혈연관계’를 과반수 전후의 높은 비율로 반응하였다. 이외에도 신뢰의 이유로서 ‘정직함’ ‘성실함’ ‘자녀에 대한 기대’ ‘순종함’이 지적되었다.

일탈 청소년이든 일반 청소년이든 모두 부모들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자녀관계에 일탈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일탈 청소년의 부모든 일반 청소년의 부모든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를 믿는다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 일탈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는 등의 생활태도 문제로 자녀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환경과 일탈행동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학교환경 변인으로, 학교의 풍토와 문화라든가, 일반고 실업고와 같은 학교유형, 좀더 폭을 넓히면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학생관계와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학생관계와 일탈행동

교사학생관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탈행동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다. 예컨대 청소년이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학업성취과정에서 교사 영향은 점차 약해졌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등학교 시기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를 증진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에는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였다.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 그 어느 변인에도 의미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써,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학업성취과정에 의미있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됨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탈행동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의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두 집단은 교사의 정서적 지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일탈행동 경험집단별로 교사학생관계의 갈등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교사와 더욱 갈등적인 관계

에 있었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교사와 학생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교사와 더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갈등을 경험하였다. 양돈규와 임영식(1998)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친구의 사회적 지원 순서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일반 청소년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집단 피해집단 무경험집단간에 교사학생관계를 비교한 결과도, 일탈행동 경험집단별 분석(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집단간에 적대적인 교사학생관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집단, 피해집단, 무경험집단의 순서로 평균이 높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폭력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으로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며,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위탁 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간의 적대적인 교사학생관계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1b). 즉 위탁 청소년이 중 고등학생보다 교사와 더욱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어떠한 심리적인 매개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학생

의 도덕적 이탈을 촉진시키고, 도덕적 이탈은 심각한 일탈행동을 야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도덕적 이탈이라는 심리특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친구관계와 일탈행동

청소년기에 친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성장해감에 따라, 주위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모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오히려 증가(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괴로울 때 의논대상’을 질문하고 자유반응형식으로 기록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과반수가 친구를 지적하였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을 기록하게 하였을 때(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도, 초 중 고 대학생집단으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친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의 중요성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점차 성장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는 일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탈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있는 타인이다. 김성언(2000)이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이나 일탈 청소년 모두에게 ‘친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였다. 그러나 친구의 유형과 친구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면, 일탈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비행성’이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친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일탈 청소년들에게서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설명은 ‘괴로울 때 의논 대상’으로서 친구의 중요성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는 사실로부터 가능하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그러므로 심각한 일탈행동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 활동의 내용 및 활동 장소 면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PC방/오락실’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유흥가에 있는 경우도 더 많았다. 반면에 ‘학교에서’ 이야기한다든가 ‘논다’든가 ‘같이 다니는’ 것과 같은 활동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하였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이와 같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한 외에도, 학교폭력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도 친구관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폭력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및 무경험집단의 친구관계를 검토하였을 때, 세 집단은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 정도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친구들로부터 더욱 따돌림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a).

위탁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정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b), 위탁 청소년이 중·고등학생보다 친구로부터 더욱 따돌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1a; 2001b)을 종합해 볼 때, 일탈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친구로부터 훨씬 따돌림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이 학교폭력행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행동과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결과가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경로분석에 의하면,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은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고, 폭력피해경험은 심각한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폭력가해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폭력가해행동이 심각한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은 간접적인 경로로도 일탈행동의 유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에게 가해행동을 하는 정도가 매우 높고, 나아가서 폭력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은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준호, 노성호와 광대경(1992)은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을 세 가지 유형의 집단 즉 ‘패거리 집단’, ‘불량씨클 또는 폭력씨클’, ‘폭력조직의 하부’로 정의하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하나인 불량씨클에 청소년들이 왜 가입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와 관련된 변인 11개, 학교 및 공부에 관련된 변인 8개, 친구와 관련된 변인 7개 전체를 투입하여 판별분석을 시도한 결과, 13개의 변인이 판별분석 모델에 포함되는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불량씨클 가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행친구의 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처벌받은 친구의 수’, ‘공부에 대한 부담감’, ‘부모생존 여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비행친구의 수가 많고 처벌받은 친구의 수가 많으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적고,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경우에 불량씨클 가입자로 분류되었다. 비행친구의 수나 처벌받은 친구의 수가 청소년 비행집단 가입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 일탈행동에 친구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극단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범죄에서 공범관계에 대한 자료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서 친구와 같은 또래집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청소년 범죄의 공범관계에 대한 통계를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문화관광부, 2001). 공범의 관계를 보면 학교동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에서 과반수 이상이 공범이 있고, 그러한 공범의 과반수가 학교 동창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예정)이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관찰 경력집단별로 친구의 범죄경력을 비교한 결과,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친구의 범죄경력이 ‘없다’는 반응은 초범집단에서 훨씬 많이 나타났으며, ‘한번 있다’, ‘두번 있다’, ‘세번 있다’, ‘많다’에 대해서는, 모두 재범집단이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 다녀온 친구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없다’는 반응은 초범집단이 재범집단보다 더 높고, ‘세명’ 및 ‘네명 이상’이라는 반응은 재범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모두, 과반수 이상이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와 매일 만나지만, 재범

집단에서 이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므로 초범집단보다 재범집단에서 친구의 범죄경력이나 보호관찰을 받은 친구의 수가 훨씬 많고, 이러한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도 더 높았다.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도 많고, 그러한 친구들과의 접촉도 훨씬 많다는 사실은,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을 시사한다.

청소년 심리특성과 일탈행동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심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일탈행동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 학생 집단 내에서 일탈행동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심리특성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두 집단은 도덕적 이탈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포부수준과 스트레스 신체증상에서도 두 집단은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사회성효능감은 높지만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더욱 낮고, 학업에 대한 포부수준도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학업성취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고 학업포부수준도 높다는 결과(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와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 학생 집단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폭력무경험학생과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결과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폭력무경험집단은 도덕적 이탈과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가해집단은 피해집단이나 폭력무경험집단보다 더욱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았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가해집단이 피해집단이나 폭력무경험집단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낮았으며,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폭력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이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이나 자기를 조절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효능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나 일반 학생과 심리적 적응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도 있다. 양계민과 정현희(1999)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나 일반학생보다 외로움과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업 및 교사 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더욱 높았다. 그러므로 피해학생들이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보다도 심리적 적응의 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학생은 스트레스나 외로움 및 우울증의 면에서 일반학생과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써, 그러한 면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 큰 문제를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철과 김인경(2000)이 청소년들의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연구한 결과도, 가해집단은 다소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집단은 전형적인 부적응 문제를 보였고, 가해/피해집단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큰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1b) 하였을 때,

폭력대처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및 어려움 극복효능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도덕적 이탈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위탁청소년이 중 고등학생보다 폭력대처효능감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평균은 더 낮았다. 또한 도덕적 이탈의 정도는 위탁청소년의 평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위탁청소년이 중 고등학생보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나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더 낮지만, 폭력대처효능감이나 도덕적 이탈의 정도는 더 높았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의 심리특성의 차이는,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예정) 하였을 때에도 확인되었다.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고등학생보다 ‘운동’에 대한 반응이 매우 많았으며, ‘컴퓨터 게임’ 및 ‘친구와 놀기’도 훨씬 많이 하였다. 그러나 독서나 만들기 및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생활’과 ‘학업’에서는 일반 고등학생들이 보다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활동의 내용이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가장 멋있다고 느낀 때’를 기술하게 한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고등학생보다 ‘없다’는 반응을 현저하게 많이 하였다. 반면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취’와 ‘학업성취’ 및 ‘칭찬 받았을 때’와 관련된 응답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할 때가 없다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에 비해 일반 고등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했다든가 학업에서 성취했을 때 및 칭찬받았을 때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멋있다고 느낄 때에 대한 두 집단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두 집단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래 진로에 대한 포부 면에서도 두 집단은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을 각자 기술하게 했을 때, 일반 고등학생은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학업/진로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탈 청소년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은 충동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나은영, 마동훈과 김철규(199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이나 PC통신에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충동적이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약과반수에 가까운 숫자가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친구와 지낸다는 사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을 결부하여 볼 때,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보다 충동적인 경향이 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심리특성들이 이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광금주,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도덕적 이탈을 ‘도덕적 정당화’ ‘이득비교’ ‘책임분산’의 세개 하위변인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이탈행동과 상관을 구한 결과, 정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가 경로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도덕적 이탈과 사회성효능감은 심각한 이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스트레스 증상은 심각한 이탈행동에 대해 의미있는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3). 그러므로 청소년이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을수록, 사회성 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행동특성과 일탈행동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다른 행동적 특성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의 행동특성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청소년의 과거 일탈행동 경험여부, 학교폭력행동, 학교에서의 처벌경험, 학업성취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과거 일탈행동은 현재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이르기까지 4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의 사소한 문제행동은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학교 1학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중학교 3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한 경로를 통해, 중학교 3학년에서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심각한 일탈행동이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침’ ‘본드나 각성제 경험’ ‘이성친구와 성적인 접촉’ ‘유혹업소 출입’ ‘가출’ ‘학교에 무단결석’ 등을 포함하고, 사소한 문제행동은 ‘학교교칙 위반하여 벌 받기’ ‘이성친구 만나 데이트하기’ ‘싸울 때 폭력 사용함’ 등을 포함한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심각한 일탈행동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사소한 문제행동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사소한 문제행동과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의 결과를 통해, 과거의 일탈행동 경험이 현재의 일탈행동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초기의 일탈행동 경험은 지속적인 일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경로모형은 학교폭력행동이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강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였으며,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직접효과를 가지므로써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한 경로로 연결되어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학교 3학년 표집을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심각한 일탈행동과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심각한 일탈행동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행동과 일탈행동의 상관을 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탈행동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가해행동이 피해경험보다는 상관의 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일탈행동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초 중 고등학생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Park & Kim, 1999a).

뿐만 아니라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간 일탈행동의 차이를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1a; Park & Kim, 2001) 하였을 때, 폭력가해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일탈행동을 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적 자료에 기반을 둔 결과는, 학교에서 또래집단에 대한 폭력가해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폭력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폭력가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이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청소년 범죄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시사된다.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청소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산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 교통사범의 순서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01). 이러한 사실은 학교폭력행동이 쉽게 일반 범죄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에서 폭력가해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폭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전이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행동이 보다 심각한 일탈행동이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의 처벌경험도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의미있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이는 학교에서 처벌경험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위탁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여러 관련변인들을 요인분석에 투입하였을 때(박영신, 김의철, 2001b), 학교에서 처벌경험은 일탈행동과 동일한 요인에 속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요

인분석하였을 때에도 동일하였다. 즉 처벌경험과 일탈행동은 동일한 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과거 일탈행동 경험여부’ ‘학교폭력행동’ ‘학교에서의 처벌경험’과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변인들이라면, 학업성취도는 부적인 관계에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심각한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학업성적은 학교 처벌경험에 대해 부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학교처벌경험은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므로써, 학업성적은 학교처벌경험을 통해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처벌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처벌을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심각한 일탈행동을 많이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이 학업성취도와 일탈행동의 단순상관을 각 집단별로 구한 결과는, 폭력가해집단, 폭력피해집단, 폭력무경험집단에서 모두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환경 → 심리 → 행동특성과, 성취행동으로 연결되는 환경 → 심리 → 행동특성 간에 질적으로 다른 역동이 있음을 나타낸 ‘청소년 행동 형성 모형’(박영신, 김의철, 2001a)의 기본적인 가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변화: 청소년기 환경과 개인특성 변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변화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횡단적인 분석에 기초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한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의 검토에 있어 일반 청소년의 사소한 문제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에서부터, 범죄청소년의 범법행동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결과들을 통해,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기로 한다.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변화에 대한 횡단적 자료분석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문화관광부, 2001)을 보면,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약 10년 사이에, 청소년 집단 내에서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연령인 14~17세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대검찰청, 2000)를 보면, 전체 청소년 범죄의 1/3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13.5%, 고등학교 중퇴자가 13.0%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사회적으로 구속되는 범죄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고등학교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분포에서 16세에서 1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결국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범법행위로까지 쉽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류나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분포(문화관광부, 2001)를 보면, 16~17세가 0.4%, 18~19세가 5.7%, 20~24세가 93.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총 2,342명인데, 그 중에서 19세 이하의 환각물질 흡입사범이 1,280명으로 54.7%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이고, 특별히 17~18세 사이에 환각물질을 많이 흡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세 집단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욱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각급주,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사소한 문제행동과 심각한 일탈행동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폭력행동이 청소년기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검토한 결과(Park & Kim, 1999a)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증가하고, 고등학생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유형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 강제로 시키기, 금품갈취와 같은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모두 중학생에서 가장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가해행동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증가하고, 고등학생에서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학교폭력행동은 청소년기 중에 중학생시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자료분석

앞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변화에 대한 횡단

적 분석 결과들을 검토하였으나, 그것이 표집된 집단간의 차이인지 실제로 발달적 차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발달적인 변화로 해석하는데 신중함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 동안에 일탈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종단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4년에 걸쳐 동일한 청소년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심각한 일탈행동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심각한 일탈행동을 측정하는 9개 문항 중에서 8개, 즉 '성인비디오(포르노) 보기' '음주' '흡연' '학교에 무단 결석' '가출' '유혹업소 출입' '이성친구와 성적인 접촉'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침'이 모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본드나 각성제 경험'만이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 경향성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중3 정도가 되면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9가지의 심각한 일탈행동을 단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한번 이상 경험한 집단의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청소년 일탈행동의 종단적 변화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심각한 일탈행동을 경험한 경우가 10%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에서는 거의 20%에 가까이 증가하고, 청소년 중기인 중학교 3학년에서는 거의 40%의 청소년이 심각한 일탈행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환경과 개인특성 변화의 맥락에서 본 일탈행동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을 4년간 종단적으로 추적(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하였을 때, 일탈행동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의 환경적인 특성과 심리 행동적인 특성들은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로 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한 것일까? 그러한 변화에 대한 검토는 청소년의 일탈행동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기 동안 일탈행동의 차이를 보인 종단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환경변인으로서 정서적 지원의 변화를 살펴 보기로 하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보다 세 집단에서의 평균 값이 낮았으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나 중학교 1학년에서와 큰 차이가 없고,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친구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고 교사의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많은 감소를 하였다.

비록 표집대상은 다르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종단으로 추적한 또 다른 연구의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에서도, 부모와 교사

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고,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하는 경향이 밝혀졌다.

청소년기 동안 사회적 지원의 변화를 분석한 횡단연구 결과들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모두 의미있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 달리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증가하는 차이가 있었다.

Park과 Kim(1999a)이 초·중 고등학생 시기의 인간관계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 교사의 애정 및 친구의 애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부모의 애정과 교사의 애정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 고등학생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의 애정은 초등학교보다 고등학생 시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로 되면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이 감소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 청소년 일탈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반비례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초기에서 점차 중 후기로 됨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최근에 누적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Park과 Kim(1999a)이 초·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횡단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가 폭력대처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어려움 극복효능감 모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동

일한 횡단자료를 갖고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초, 중,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자기효능감과는 반대로 점차 일탈행동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기가 진행되면서 일탈행동은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종단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자기효능감의 감소현상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청소년기 동안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현상과는 반대로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이 초·중 고등학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박금주,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도덕적 이탈의 하위변인인 ‘도덕적 정당화’와 ‘책임감 분산/전이’ 모두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에 급격한 감소(박영신, 김의철, 2000)가 일어난다는 결과들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등학교와 같은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지만, 점차 성장하여 청소년 중 후기로 됨에 따라 부모와 교사의 지원은 계속 감소하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감소하나,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써, 일탈행동의 증가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아래에서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질적으로 다른 두 문화: 반복되는 일탈적 삶의 양식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1966년에 4.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6.1%(경찰청, 200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재범률은, 일단 범죄행위를 하여 수감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또다시 재범할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기의 범죄경험은 성인기의 범죄경험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준호, 이순래, 1995). 극단적인 범죄행위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에서도 폭력은 재생산된다는 증거(김은경, 1999)들이 있는데, 성장기에 체벌을 많이 경험했던 교사들일수록, 학생지도에서 폭력적 훈육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하였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들은, 인간이 겪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일탈행동의 경우도 경험에 의한 지속적인 재생산이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1회적인 일탈행동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경험이 지속적인 일탈행동 또는 더욱 심화된 일탈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하나의 단편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양식으로 존재하고,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의 양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청소년집단의 하위 문화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이 구성된 하위 문화가 주된 문화를 위협하고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일

탈행동은 개인 심리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차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자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일탈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절망스러운 일탈적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다른 희망과 성취적인 삶의 역동에 합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의 행동이 인간 개인의 의지나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되며, 학교에서는 또래집단들로부터 심각하게 따돌림을 받고,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범관계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면, 청소년의 일탈적인 삶의 양식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혹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부모의 거부, 비행친구의 존재, 낮은 학업성취도 등 비행유발적 생활조건에서 이미 비행에 깊이 가담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 즉 부모나 친구 및 교사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된 환경과 일탈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므로써, 일탈청소년이 일탈적 삶의 양식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서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심리학자들(Bandura, 1997; Kim, 1999)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비록 일탈 청소년이 속해 있는 환경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도, 그러한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일탈행동을 재생산해내는 하위문화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와 질적으로 다른 성취를 재생산해내는 주류문화의 사이클

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술과 심리적인 역량, 예컨대 자기조절효능감이라든가 어려움극복효능감 등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성공경험의 제공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심리적 설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일탈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교정교육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기조절효능감 등을 어떻게 향상 시키느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인 심리적 기제의 감소보다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의 유입과 증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은 일탈적인 삶과 성취적인 삶의 역동이 질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차원에서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근거로서 ‘청소년의 경험과 심리 - 행동의 형성’ 모형(박영신, 김의철, 2001a)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바는, 청소년 문화에서 주된 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 문화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다른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의 양식을 재생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주된 문화와 하위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삶은 질적으로 다른데, 부모나 교사가 이러한 질적 차이에 대한 통찰과 인식이 부족하고, 주된 문화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하위 문화의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러한 기준에 청소년이 못 미칠 때 무시하거나 혼 내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남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주된 문화의 틀을 하위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위 문화 자체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려는 현실적 노력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

구는 현실적인 노력의 방향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 사회적 지원 감소와 도덕적 이탈 증가의 맥락에서 본 일탈행동 변화

한국 사회에서 학생 범죄율의 증가 등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여러 가지 횡단적 지표들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인 추적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은,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로 점차 성장해 가면서 일탈행동이 증가(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하였다. 바람직한 인간을 모토로 하는 학교교육을 계속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일탈행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소년원에 가는 등 범법행위로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종단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일반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들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심각한 일탈행동 경향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개인의 발달과정으로 개인 내적인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초기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청소년 중기인 중학교 3학년까지, 일탈행동과 관련되는 환경과 심리특성의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도덕적 이탈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도덕적 이탈이란 Bandura (1995)의 조작적 정의를 수용한 것으로서 예컨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정당화한다든가, 타인이나 다른 일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잘못의 정도를 감소한다든가, 잘못의 책임을 주위로 전가하거나 분산하며, 잘못된 행동의 영향에 대해 왜

곡적으로 받아들이고, 비인간적인 자세로 되는 등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인식(김시업, 김지영, 2002) 등, 실제로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이탈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차극추구동기(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등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있겠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최근에 밝혀진 결과들을 보면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예언력있는 변인으로서 도덕적 이탈이라는 심리적 구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이탈이 환경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심을 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며, 예컨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라든가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 등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토대하여,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처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원으로서 ‘흔들리는 가정’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서 태풍의 눈과 같은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지적할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라든가 친부모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년범죄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일탈 청소년들이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통계청, 2002b)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붕괴되는 가정에서 성장기의 청소년 자녀가 겪는 충격과 갈등, 그리고 세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실감과 이에 따른 정서적 혼란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된다. 피를 나눈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되었다는 충격과 상처, 결손된 가정에 존재하게 되므로써 또래집단에서 무언지 모르게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함,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받아야 할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애정의 결핍상태 등이, 이제 막 나뉘게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을 혼란과 정신적 공황의 상태로 내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 고등학생들(61.5%)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청소년들(62.8%)도 ‘부모’를 지적하였다는 사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예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모는 소중하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혈연의 관계인데, 그러한 절대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버림받고 거부되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은 도덕적 이탈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증가된 도덕적 이탈이 일탈행동을 유발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경로분석(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면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만 문제이고 외면상 그러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은 모두 일탈 행동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망 속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필자의 분명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친부모의 슬하에 있는 경우가 2/3를 훨씬 넘고 있다(대검찰청, 2000).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결손가정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시적으로는 방황하며 반항하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일탈 청소년이 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모범 청소년으로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친부모가 버젓이 있는, 구조적으로 정상 가정에서도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손가정이냐 하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보다는, 가정이 붕괴되는 충격적인 경험으로부터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험과 충격이 도덕적 이탈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청소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애정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며 자녀를 양육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녀는 일탈의 삶이 아닌 성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친부모와 모두 함께 살아도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청소년 자녀가 거부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각하게 된다면, 그 청소년 자녀가 겪는 심리적인 결손은 붕괴된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유사한 종류의 경험이 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를 통해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즉 부모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자녀가 부모와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청소년 자녀가 일탈행동에 많이 개입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되었다는 좌절감은, 다른 관계에도 확대되어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 즉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거부되고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촉진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경향성은 일탈행동과 범죄행동에의 가담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결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원은 흔들리는 문제의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청소년들도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부모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자식 포기 각서”를 쓰는 부모를 둔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겪는 좌절과 고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치유되기 어려운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촉진자로서 친구관계

부모로부터 거부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또는 결손된 가정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진원지가 된다면,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마음 붙일 곳 없는 청소년들이 유사한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탈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므로써 서로 위로받고, 친구의 일탈행동을 모델로, 함께 일탈행동을 하는 과감성을 키우므로, 일탈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관계는 일탈행동의 촉진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의 또래집단, 그리고 문제의 행동으로 확대되어 가는 청소년의 일탈 과정에 대해, Bandura(1997)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고 처벌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반사회적인 비행이 발달(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한다. 부모가 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수단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이러한 환경조건에 있는 아이들은 저항적이고 적대적으로 된다. 즉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서 반 정도는 부모가 굴복하므로써 자녀의 저항적 행동을 강화시키고, 다

른 반 정도는 아동이 포기하기 때문에 부모의 강제적인 행동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 점점 더 투쟁이 강해지도록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공격적인 대처양식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대처양식을 또래와 교사에게 일반화시키므로써, 친사회적인 또래들로부터 거부 당하고, 이것은 심한 소외행동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또래의 거부, 학업 실패, 아동의 집 밖 행동에 대한 부모의 불충분한 관찰 등은, 비행에 하는 또래집단과 선택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조장한다. 이렇게 가까워진 반사회적 또래는, 모델이 되어 비행을 가르쳐 주며 보상을 해 준다.

청소년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서 대리적 경험(모델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연령, 성,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지위, 인종, 민족과 같은 유사한 개인적 특징이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예컨대 동일한 인지적 기술을 나타내는 숙달된 또래모델과 성인모델을 관찰했을 때, 아이들은 또래집단 모델링으로부터 개인효능감을 더 강하게 얻었다(Schunk & Hanson, 1985). 또래집단의 가치와 행동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며,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밀접히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동조행동의 강도가 높으며, 특히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행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Lemper와 Clark-Lemper(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초기(11-13세), 중기(14-16세), 후기(17-19세) 집단 모두, 다섯 명의 의미있는 인간관계(부, 모, 가까운 형제자매, 가까운 동성친구, 중요한 교사) 중에서 가까운 동성친구가 가장 친밀감과 동료의식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해 나감에 따라 친구관계가 중요해진다는 사실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확인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Chung, Kwon, Lee, & Park, 1999). 특별히 사회적인 일탈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친구관계가 부각되었다(김성언, 2000; 김준호, 노성호, 광대경, 1992;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고등학교 재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과 최원기(1990)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와 접촉을 많이 한 청소년일수록 실제로 비행을 많이 하였다. 김준호와 박미성(1993)의 연구에서도 비행을 하는 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이 많았다.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구속되는 범죄행위나 보호관찰을 통해 통제받는 행동을 할 때, 그러한 청소년 집단에서의 친구관계는 곧 공범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공범이 있고, 이러한 친구들과 매일 만난다는 경우가 초범이든 재범이상이든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문화관광부, 2001).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범죄경력이나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매우 많았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과 자극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범죄의 공범으로 진전하거나 일탈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떠한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대상 선택의 문제와, 친구들과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맺

어나갈 것인가 하는 관계의 내용과 질의 문제, 친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형성의 전략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교교육의 무력화 현상과 청소년 일탈행동: 좌절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에로의 변화

청소년 범죄 중에서 학생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문화관광부, 2001)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또한 범죄 청소년들의 학력구성(김성인과 노성호, 1999)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인 청소년 범죄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청소년 범죄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범죄 청소년의 학력이 점차 고학력자로 구성되어가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이 줄고 고등학생이 증가한 우리나라 청소년 층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와 관련되어 있다(김성인, 노성호,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청소년 범죄 비율이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교육으로서 역할에 치중되고 인간교육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지각을 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고 지도력이 상실된 상태’를 학교붕괴로 정의하였을 때, 대다수의 교사와 학생이 학교붕괴현상을 인정하고 있다(윤철경, 1999). 이와 같이 수업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면에서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교사가 지도력이 상실되었다고 본다는 것은 실제로 학교붕괴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의 일탈행동이 제대로 지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 없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교육작용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서 만약 교사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었을 때는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더욱 이탈되고, 이러한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직결(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일탈행동의 예방에 중요하다라는 제안은, 청소년의 비행여부가 학교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를 혐오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혐오의 이유로는 ‘공부가 싫어서’와 ‘교사혐오’가 많았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1997). 또한 김준호, 노성호와 박대경(1992)은 청소년의 불량씨클 가입여부가 가정관련 변인보다 학교 및 공부관련 변인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되며,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청소년들이 불량씨클에 가입하는 정도가 많음을 밝혔다. 여기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이란, ‘학교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낌,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낌, 학교에 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음, 학교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처벌경험을 많이 한 청소년이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로부터, 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벌이 실제로 긍정적인 교육효과보다는 더욱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을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정적인 처벌을 통해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Bandura(1997)가 강조하고 있는 바처럼 잘하는 것에 대한 언어적 설득 즉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여 줌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피이드백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볼 때, 과연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상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체벌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김은경, 1999)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체벌의 정당성 및 효과에 대해 교사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은경(1999)은 체벌이 공격적 모델링을 제공하고 부정적 자아 형성 등 일탈적 사회화를 가중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격성 학습 및 일탈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자료로, 체벌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특히 폭력친화적인 태도가 높음을 들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다양한 처벌을 받은 경험은 학교에서의 폭력가해행동 뿐만 아니라 여러 심각한 일탈행동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초 중등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이,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 중심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적 격려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을 증진 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Bandura(1997) 등을 중심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탈 청소년들이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가장 자신이 멋있다고 느낀 때’라든가, ‘요즘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 등을 탐색하려는 시도(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 예정)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생들에게 ‘끼’를 요구하는 스포츠댄스를 가르쳤을 때 만족감과 높은 학습효과나, 복싱을 가르쳐서 복서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결국 일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초점은 좌절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삶을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 교육의 문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이라는 단일목표를 기준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높은 학업성적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보상도 받는 것이 어렵고, 학업에서의 성취라는 단일하고 협소한 하나의 기준 외에는 수용되고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성적인 행동과 태도마저도 문제의 범주로 내몰아진다.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비록 일탈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받는 극단적 부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발달에 방해가 되는 뒤떨어지는 삶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 맥락에서의 일탈행동: 개방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각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청소년 행동 형성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의철, 박영신, 1999).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이동원, 김지선, 1999).

사회환경과 문화에 대한 고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을 모두 필요로 한다. 먼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농경사회나 공업사회에서는 일탈행동으로 상상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 정보화사회에서 일탈행동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도 청소년의 이성관계가 문

제가 되었지만 그 방식과 형태의 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와 같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기껏해야 성인비디오를 부모가 없을 때 몰래 빌려다 보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메일로 오는 성인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시험칠 때 컨닝을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해킹을 통해 시험문제를 미리 훔쳐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과 수 십년 사이에 한국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청소년을 유혹하는 사회환경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적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중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 및 컴퓨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규범들이 건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로 유입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개성적인 행동양식과 가치의식 뿐만 아니라, 일탈적 행동양태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상호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 추세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이 이제 더 이상 각 가정에서 부모의 관리와 지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 전체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공유된 책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가치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탈행동의 모델이 주위의 가까운 친구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불특정 대상일 수 있고,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학습과 같이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일탈행동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문화의 획일화와 동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각 사회는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일탈행동의 유형이라든가 정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의 일탈행동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에 개인의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를 난사하는 것과 같은 사건은 전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행동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집단 따돌림’이 많았다(윤철경, 2000).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일본과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더 높다는 사실은, 내집단 편애가 강하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타적인 경향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쨌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구성원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는 관계문화(Lee, 1980)이다. 따라서 개인은 독립된 존재라기 보다 상호관계의 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가족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이루며, 사회적인 관계는 가족관계의 확대라고 지적하였다(Kim & Choi, 1994). 그러므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조직에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맥락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영신, 김의철, 2000). 그 한 예로 부모의 통제는 부모의 애정과 달리 적대나 부모와의 갈등과 유사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변인들과 달리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0). 동양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관심의 표시로 인식하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인다(Feldman &

Rosenthal, 1991; Rohner & Pettengill, 1985). 그러나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비신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하였다(Rohner & Pettengill, 1985).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특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죄송함’ ‘헌신’ 등과 같은 독특한 개념들로 구성되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Park, 2002a; 2002b) 되어 왔다. 앞으로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속성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역동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탈행동 그 자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성개념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권준모(1999)는 한국의 왕따현상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함을, 박금주(1999)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국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주로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 일탈행동 전반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죄송함을 느끼므로써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높아진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결과(Park, 2002b)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처럼, 성취와 관련된 청소년의 주된 문화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들이 매우 독특하게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형성과 역동에 관련하여서도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와 환경특성과 관련된 어떠한 측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

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이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 하면 미래가 촉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부 외에 헤비 메탈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 골치 아픈 아이이고, 성적이 나쁘면 대학도 못 가고 앞으로 할 일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하나의 도식화된 고정관념이 문제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일탈’인지, 미래에 추구되어야 할 ‘모범’의 방향은 무엇이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인터넷 혁명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세계가 손쉽게 교류하는 추세 속에서 보다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요구하고 다양한 의미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가 손가락 끝에 있는’ 열린 사회에서 과거 폐쇄적으로 닫힌 사회에서의 논리만 집착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다양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모여 긍정적인 답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가야 하는 시대에, 주어진 모범답안을 의문없이 외워 성적만 좋은 사람들이 정형화된 정답을 수동적으로 쫓아만 가는 마인드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정보를 생산해야 하는 시대에 정보를 착실히 축적하는 방식에 집착하다는 점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국민적 가치지향과 의식이, 문제 청소년 또는 일탈 청소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이후 농경시대 공업화시대를 거치며 약 반세기동안 한국이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경제적 교육적 성장의 기반이 된 논리와 가치들이, 이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재검토되고 질적인 변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구문화의 무조건적인

유입과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동시적으로 우리의 토착적인 정서와 행동 및 삶의 양식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어 가는지에 대한 집요한 탐색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체성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2). 경찰백서.
- 교육부. (2000). 교육통계연보.
-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 프로그램 (I): 개관.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05~122.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문제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에 관하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권준모 (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59~72.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2a).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9~154. 영남대학교 국제관 파인룸.
- 권혁호, 김의철, 박영신. (2002b). 청소년기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연구: 종단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6~351.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김성언. (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0-09.
- 김성언, 노성호. (1999). 청소년범죄 추세 분석: 196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20.
- 김시업, 김지영. (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15.
- 김은경. (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1.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곽대경.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미성 (1993). 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나은영, 마동훈, 김철규. (1999). 인터넷 PC통신 몰입 수준에 따른 행동양식의 차이.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73~90.
- 대검찰청. (2000).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
- 문화관광부. (2001). 청소년백서.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중단연구.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예정).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과 개인특성에 대한 분석.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편 (1997).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 18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양계민, 정현희. (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 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윤철경. (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2000). 새천년에 있어서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의 과제.
- 이동원, 김지선. (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4.
- 이상미. (1997). 비가출 가출경험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관한 종단적 분석: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2년 연차학술대회 교육심리분과 발표, 1~19. 창원대학교 인문관.
- 조성호. (2000).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 조현진,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55~72.
- 중앙일보. (2003) “내 자식 포기” 각서 쓰는 부모들. 1월 21일 6면.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녀관계에 대한 분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1~326.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 학대학.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예정).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 통계청. (2000). 국제통계연감.
- 통계청. (2002a). 2002년 청소년 통계.
- 통계청. (2002b).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
-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21.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ung, K. S., Kwon, H. H., Lee, S. M., & Park, Y. S. (1999).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health, and delinquent behavior: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216.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Chung, K. S., Choi, J. S., Park, Y. S., & Kim, U. (2002).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Kim, Y. H., Park, Y. S., & Kim, U. (2002). School violence of Korean adolescents.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Lee, D. S. (1980). Traditional norms in family and problems of modern family. In D. S. Lee (Ed.). *Traditional values and establishment of new values*.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Lee, S. M., Park, Y. S., & Kim, U. (2002). Trust consciousnes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Lemper, J. D., & Clark-Lemper, D. S. (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mparisons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1(1)**, 53~96.
- Park, Y. S.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ctioning: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p. 84. Paper presented at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olish Academy of Science, Pultusk, Poland.
- Park Y. S. (2001).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grade, life-satisfaction and delinquency: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Symposium 2: The concept of self, relationship, and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49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Group Dynamics Association. p.4~5. October, 27-28, The University of Kumamoto. Kumamoto, Japan.
- Park, Y. S. (2002a).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speaking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2b).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digenous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Keynote Lecture at the 44th Annual Conference of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p. 21 & p.1~8, October, 12-14.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Japan.
- Park, Y. S., & Kim, U. (1998). Relationship among

- attributional style,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al outcomes: Comparative analysis of primary, secondary, and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living in detention centers. Paper presented at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21. August 9-1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San Francisco. USA.
- Park, Y. S., & Kim, U. (1999a).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role of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10.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Park, Y. S., & Kim, U. (1999b).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 Park, Y. S., & Kim, U. (2001).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Comparative analysis of victims, bullies, non-participants of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chunk, D. H., & Hanson, A. R. (1985). Peer models: Influ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13~322.
- 1 차원고집수일 : 2003. 2. 24.
최종원고집수일 : 2003. 4. 1.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Young-Shin Park

Inha Univ.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 Dep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basis and change of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Theore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and qualitative analysis of delinquency behavior was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s and chang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individual factors were investigated throug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six main points: 1) two subcult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could be ascertained, 2) the decrease in social support and increase in moral disengagement were directly related to a rise in juvenile delinquency, 3) family disintegration contributed to juvenile delinquency, 4) peer influence help to raise juvenile delinquency, 5) schools were unable to give hope to those students who were not doing well in school and were ineffective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6) the phenomenon of juvenile delinquency points to the importance of opening up the closed school system and closed society, allowing individual diversity and skills to be recognized.

key words :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bully and victim, moral disengagement, social efficacy, parent-child relationship, social exclusion.